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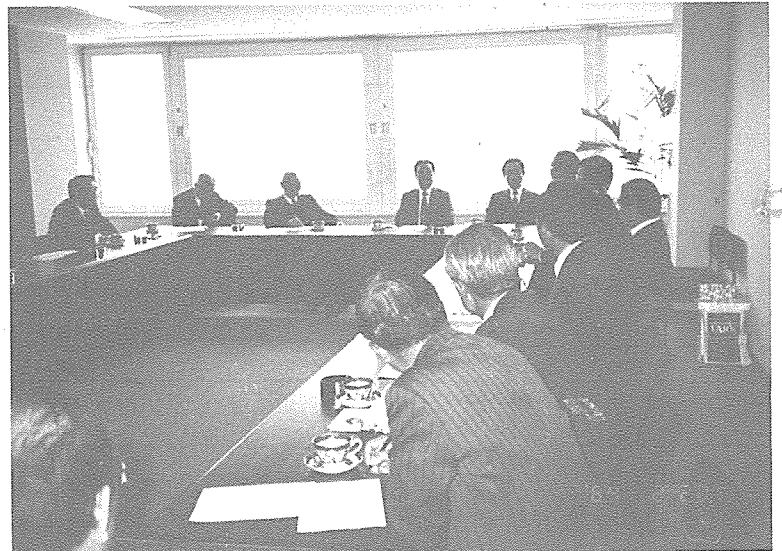
國際交流를 위한 訪日 報告

“日本建築士連과 技術協力 제의”

本會 會長 . / 金 枝 泰

다음은 지난 2월19일부터 2월26일까지 7일간 日本建築士連合會와의 國際交流를 위해 渡日했던 金枝泰회장을 단장으로한 해외 대표단의 활동을 소개한 것이다.

대표단은 이번 여행에서 양국 단체와의 본격적인 교류를 통한 유대강화를 위해 기술협력축진을 위한 방안으로 합의각서작성을 제안, 공식적인 국제교류를 모색했다.



□ 기념패를 전달하는 金枝泰회장(좌측은 太田회장)

□ 회담중인 양국대표단

① 國際交流를 위한 準備 / 目的

이번에 日本建築士連合會를 공식적으로 방문하게 된 것은 본협회 國際交流事業의 일환으로 양국 단체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한 建築文化 發展에 보다 効率的으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협회의 이같은 시도는 지난 82년 2월 具圻會 前會長과 본인이 東南亞 6 개국의 建築士團體(82년 4월호 회지 참조)를 순방하고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모색한 것으로 부터 비롯되었으며 당시 최종 심방국인 日本建築士連合會와 양국 단체간의 교류를 제의한 바 있었다.

그후 83년 10월 서울支部와 東京建築士會의 교류도 협의된 바 있으며 때마침 吳雄錫서울지부장의 渡日時連合會 太田會長 앞으로 공식적인 교류를 위한 협의를 희망하는 書翰을 전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太田會長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 했으며 공식적인 양단체간의 교류를 위한 회합의 기회를 희망했다. 따라서 본인을 비롯한 일행 6명은 지난 2월19일 일주일간의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돌이켜 보면 한국과 일본은 지리

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그동안 공식적으로 建築士 團體間의 교류가 없었다. 이는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세계적인 건축문화 추세로 미루어 볼 때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믿어 이번 기회에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준비를 해 왔다.

특히 도일에 앞서 본인은 지난 2월15일 건설부산하단체의 8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본협회의 국제교류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일본과의 교류추진을 건설부장관께 보고드린 바 있다. 따라서 이번의 일본 방문은 公人으로서 국가적으로 민간 외교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개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이같은 노력은 우리 협회가 국내외적으로 시야를 넓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육성 발전해 나가기 위한 시도일 뿐 아니라 결국 회원의 지위향상을 통한 선진조국창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주안점이 있다고 하겠다.

② 意 義

그동안 협회에서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못한 것은, 첫

째로 협회의 현실적인 당면 문제 해결로 새 사업에 눈돌릴 여유가 없었으며 둘째로는 교류에 필요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채 계속 침체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대내외적으로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의 위치도 날로 확고해짐에 따라 이에 발맞춰 우리 협회도 창립 19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감각과 폭넓은 기술협력을 통한 회원의 권익증대에 초점을 맞춘 국제교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더구나 有關團體인 韓國建築家協會와 大韓建築學會 등이 UIA(세계건축가연맹)와 日本建築學會와 각각 상호교류를 꾸준히 하고 있어 우리 협회로서도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믿어 조형창작분야의 제도나 조직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東南亞 諸國 중에서 우선 일본과의 교류를 시도하게 되었다.

일본과의 기술협력 등 교류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 이를 계기로 다른 나라와도 협력관계를 갖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제교류의 주된 목적은 우선 기술협력 축진을 위한 정보교환과 양국

建築士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우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따라
서 주요 협력사항으로 ① 상호 방문
시찰과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
② 기술교류 및 간행물 등 정보자료
교환 ③ 諸 外國의 제도, 시책 및 기
타 자료교환 ④ 학술대회 또는 전시

능했지만, 통역은 東京大学에 研究次
와 계신 한양대의 李利衡교수의 도움
을 빌어 회담을 진행했다. 먼저 양
측 대표자의 인사와 양국기가 새겨
져 있는 자개기념패 등 준비해간 기
념품 등을 기증했다. 이어서 참석한
인사들에 대한 소개를 끝으로 본격

시간이 오후 2시경이었으며, 이어서
그들이 마련한 스케줄에 따라 우리
일행은 시찰길에 올랐다.

이번 회합을 통해 우리 일행은 儀
典上의 절차 문제를 비롯해서, 意思
소통을 위한 外國어 驅使, 交流國과
의 사전협의관계 등에 대해 많은 것



□ 회담에 참석한 일본측 인사들



□ 회담중인 한국측 대표단

회 등의 상호참여 및 공동개최 ⑤ 建
築士補助研修 등으로 요약된다.

이같은 계획은 물론 교류대상국에
따라 받아들이는 각도가 달라 질 수
있겠지만 대체로 이상과 같은 내용
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된다.

결국 새로운 각오로 국제교류를 시
도해서 바람직한 관계가 유지된다면
우리 협회창립 이래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뿐 아니라 이로써 회원
의 창작활동이 다른 자질연마와 사
회적 지위향상에 이바지 되는 기회
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③ 日本에서의 會合

渡日 다음날인 2월20일 오전 10시
약속된 시간에 우리 일행은 日本建
築学会會館內 5층에 자리잡고 있는
日本建築士連合會를 방문, 회장실
에서 간단한 인사를 끝내고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17명의 일본
측 참석인사와 우리 일행은 太田會
長과 본인을 중심으로 우측에 일본
측, 좌측에 한국측이 자리잡고 회담
에 들어갔다.

관례상 일어에 의한 의사소통은 가

적인 회담에 들어 갔다.

먼저 회합의 성격과 이에 따른 양
측의 의견교환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2시간여에 걸쳐 기탄없이 개
진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일본측
은 일본건축센터(자재, 시공, 설계 등
에 대한 협의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
유 받았다.

이어서 회합의 하이라이트인 양단
체 교류에 따른 협력방안의 주요골
자 文案인 「韓日技術協力促進을 위한
合意覚書」 초안을 배부하고 이에 대
한 내용 설명에 이어 일본측의 검토
와 보다 발전적인 결과를 추구했다.

일본측은 우리의 제안에 수긍하고
太田회장이 차기 이사회에서 협의해
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일본
측도 이같은 교류에 관해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신중히 대처해 나가는
인상이었으며, 추후에 알게 되었지
만 일본에는 건축사와 관계되는 단체
가 日本建築士連合會 외에도 공인된
단체가 4개나 있어 그들 단체와도
협의해야 할 형편이라는 것이다. 결
국 이를 끝으로 공식적인 회합을 마
쳤다.

회합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連合會
측에서 준비한 점심을 들고 작별한

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본회가 앞으로 계속 국제교류
를 추진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를
効果的으로 추진할 전담직원이나 또
는 전담위원회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했다.

향구적으로 우리 협회도 회원의 권
익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해, 나아가
자율적인 면에서도 무엇이든지 建築
士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의 영역은 차츰 잠식되어
갈 것이며, 이는 昨今の 상황에 미루
어 볼 때 더욱 확연해 지는 사실이
다. 따라서 이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서는 냉철한 자각과 오늘과 내일을
투시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조형창
작 예술인으로서의 긍지를 드높이는
작업이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할 것이
다.

본인은 이번에 일본과의 교류를
갖기 위한 일련의 회합에서 개인자
격이 아닌 한나라의 단체대표로서 소
임을 성실하게 마쳤다고 자부 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교류가 하루속히 이
루어질 것을 바라는 마음 뿐이다.